

Table of Contents

I. 들어가는 말

II. 금강산의 어원

III. 담무갈 보살의 유래

IV. 회암의 유래

V. 나가는말

V. 나가는말

구분	내용
회암사 VS 아란타사	▪ 인도에 있었다는 과거불 가섭불의 도량인 아란타사의 터가 회암사터를 본 따 만들었는지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는지가 회암사 유래의 관건이 된다. 이는 금강산의 유래를 밝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. 지금까지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다는 연구는 있지만 반대로 아란타사가 회암사터를 본따 만들었다는 연구는 없다. 지공은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닮았다고만 했지 어느 절터가 먼저 었는가를 밝히지는 않았다. ▪ 만약 기존의 연구처럼 회암사터가 아란타사를 본 따 만들었다면 굳이 지공이 2년간 담무갈 보살을 보러 금강산에 올 이유도 없고 회암사터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. 무학과 이성계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. 조선 초기에는 지공이 간접적으로 아란타사가 회암사터를 본따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간주된 것이다. 지공이 금강산을 보러 멀리 북경에서 왔던 이유 또한 타고르와 같이 금강산이 수미산임을 확인하러 온 것이 된다. 이에 따라 석가불과 미륵불의 대립과 같이 김동과 지공의 대결과 같은 많은 전설도 만들어졌다. ▪ 이 글은 인도에 있었다는 과거불 가섭불의 도량인 아란타사의 터가 회암사터를 본 따 만들었다는 입장의 연구이다. 기존 연구와 달리 역사 사료들은 이 글의 취지와 같이 기술되어 왔고 최근의 가야 연구와 중국의 서북공정연구는 이 글의 논지를 뒷받침 해 준다. 후속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.

감사합니다